



‘숲길 산책·해상분수쇼…’ 꿀잼과 힐링 전남에 가득

맞새간(14~18일) 이어지는 달콤한 추석 연휴, 어디로 갈까. 모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황금 연휴 가족과 함께 전남에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초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휴식과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남지역 볼거리, 즐길거리, 산책명소를 소개한다.

●자연경관 만끽하며 산책해요

영광 물무산 행복숲, 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 진도 사천리 무장에숲길 등 전남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소가 여럿 있다.

물무산 행복 숲은 숲 속 둘레길 10km, 맨발 황톳길 2km,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 편백 영상원, 소나무 숲, 예술원, 가족 명상원, 하늘공원, 등산로 3.5km, 운동기구가 조성돼 있는 종합 산림복지 숲이다. 특히 맨발 황톳길은 황토의 건강함과 질퍽거리는 재미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질퍽한 황톳길 0.6km와 마른 황톳길 1.4km로 구성된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구례군 천은사 상생의 길은 사찰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은사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과 천은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3.3km의 순환형 산책로이다.

상생의 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0.7km)을 비롯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7곳, 수달 등 야생동물을 배려한 자연 친화형 탐방로(0.4km)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남녀노소가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는 해식에 절경과 어우러진 목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색적인 산책로이다.

산책로는 2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용머리 탐방로(931m)로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조형물을 볼 수 있고 오른쪽의 해안동굴탐방로(768m)로 가면 태평양전쟁 때 만들어진 해안동굴을 둘러보며 역사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고하도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다도해 풍경을 감상하면서 일상에서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진도 사천리 무장에 숲길은 장애인, 노약자, 어



구례군 천은사 상생의 길.



고흥군 금산 해안도로 일원.



진도군 사천리 무장에숲길.

추석연휴 가볼만한 전남 명소

물무산행복숲·산이정원·해상데크 등 여수 ‘빅오쇼’ 11월30일까지 가동
광양도립미술관 허영만 작가 초대전



여수시 엑스포해양공원 ‘빅오쇼’.



전남도립미술관.

린이 등 모두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숲길 1.3km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조성한 0.5km의 둘레길로 조성됐다.

편백나무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흠뻑 마시며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인근 윤림삼별초 공원에는 한옥체험관, 삼별초 홍보관, 파크골프장 등의 편의 시설도 갖췄다.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최고 명소

해남 산이정원은 ‘산이 곧 정원이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이다.

다양한 조형물로 꾸며진 동화정원, 가든뮤지엄, 웨딩가든 등 해남군 산이면 산새와 어우러진 정원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맞이 한마당 이벤트도 운영한다. 플리마켓, 지역 특산물 판매와 함께 민속놀이 체험과 가야금산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명절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빅오쇼는 바다를 배경으

로 설치된 ‘디오(The-O)’라는 원형 조형물 안에 분수, 화염, 레이저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해상분수쇼다.

공연 기간은 11월30일까지 수·목·금·토·일요일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휴장 없이 운영한다.

옛 광양역 자리에 건립된 현대미술관인 광양도립미술관은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들을 주력으로 수집하여 전남의 예술성을 알리고 해외 현대미술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2024 허영만 특별 초대전을 관람할 수 있다. 추석 당일 17일은 휴무다.

순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성곽과 마을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6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다채로운 주말 상설 공연을 개최한다. 추석 연휴 기간 매일 오

후 2시 30분에 전통 공연이 펼쳐지며, 상설체험장 8곳, 전통흔레 체험, 농촌체험 등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모바일 앱 통해 할인 혜택 받으세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할인하는 이벤트다. 도내 숙박업소 이용 시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다. 또 인기 체험상품을 정가 대비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플러스1 블루투어 특별행사’도 추진 중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무더위가 가고 절실한 계절 가을을 알리는 추석 명절이 찾아왔다”며 “전남을 방문하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명소를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조진용 기자



해남 산이정원. 전남도 제공